

오늘 금통위... 성장률 전망 하향 수정

0.1~0.2%p 인하된 2.6~2.7%로 예상... 주요 기관들 2%대 중반 전망... 금리는 동결 우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14일로 예정된 가운데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다시 한 번 하향 조정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은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본관에서 금통위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수정 발표한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는 점에서 이번달엔 금리를 동결할 것인 전망이 우세하다.

주요 경제 관련 기관들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상황에서 한은이 다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지에 이목이 쏠린다.

한은은 지난 4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8%로 수정한 바 있다. 한은이 지난해 1월 발표했던 2016년 성장률 전망치는 3.7%였다. 이어 4월 3.4%, 7월 3.3%, 10월 3.2%로 매번 낮아졌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0.2%포인트 인하된 2.6~2.7%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4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낮출 당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세계 경제성장률과 세계 교역 신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것이 주된 이유"라며 "다만 2·4분기 이후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사이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브렉시트)하고 사드 배치가 공식 결정되는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커졌다.

국내적으로도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되면 능수축산



정열의 삼바 13일 서울 중구 명동 유네스코거리에 롯데월드 어드벤처, '물썸머, 핫삼바 페스티벌'이 펼쳐지고 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여름에도 하얀 눈이 내리는 '쿨'한 롯데월드에서 오리지널 브라질 삼바 댄서들의 '핫'한 공연을 만날 수 있는 축제인 '물썸머, 핫삼바 페스티벌'을 오는 8월 28일까지 펼친다.

물을 중심으로 11조원의 타격이 예상되는 등 내수가 위축될 것인 우려가 나온다.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행진을 18개월째(6월 기준) 이어가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과 여파도 하반기에 본격화할 전망이다.

IG경제연구원은 12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는 2.5% 성장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2.1%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해 11월 전망치(3.1%)보다 전망치

를 0.4%포인트 하향했다. 국제통화기금(IMF, 3.2~2.7%), 아시아개발은행(ADB 3.3~2.6%) 등도 연이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춰 잡았다.

3.1%의 목표를 유지하던 정부마저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하면서 전망치를 2.8%로 수정했다.

한은의 2.8% 전망치가 다소 낙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금통위 회의에서도 "지난 4월 경제전망 시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하향조정했는데, 향후 하방리

스크를 고려하면 이 또한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이미 한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추가경정(추경) 예산이 편성 예정된 점을 감안하면 전망치의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IMF를 포함한 각 기관의 글로벌 경제에 대한 눈높이가 계속 낮아지는 상황인 데다 한국의 성장세가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에 한은 역시 경제성장률 전망을 낮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가 적용될 수 있

차세대 자성 메모리 소재기술 개발

박병국·이경진 연구팀, 속도·집적도 동시 향상

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메모리인 '자성 메모리(MRAM)' 동작속도와 집적도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소재 기술을 개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박병국 한국 과학기술원 교수와 이경진 고려대 교수 공동연구팀이 MRAM 속도와 집적도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소재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MRAM은 실리콘 기반 기존 반도체 메모리와 달리 얇은 자성 박막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비휘발성 메모리 소재다. 외부 전원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정보를 유지할 수 있으며 고속 동작과 집적도를 높일 수 있다.

이같은 특성 때문에 메모리 패러다임을 바꿀 새로운 기술로 주목돼 전세계 우수 반도체업체가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개발 경쟁을 벌이는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메모리 동작 속도를 더 높이면서도 고집적도를 동시에 구현 하는 기술이다. 현재까지 개발된 MRAM 기술은 동작 속도를 최고치로 유지하는 경우 집적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공동 연구팀은 동작 속도를 기존 MRAM 기술보다 10배 이상 끌어올리면서 고집적도를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

이번 연구 기술이 적용될 수 있

는 일반적 스핀궤도토크 기반 MRAM은 정보기록을 위해 중금속·강자성 물질의 스핀궤도결합을 이용한다.

백금(Pt) 또는 텅스텐(W) 등 중금속·강자성 구조는 소자를 구동하려면 외부 자기장이 필수적인데 이는 고집적 소자 개발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지적된다.

공동 연구팀은 이리듐-망간(IrMn) 합금과 같은 새로운 반강자성 소재를 도입해 반강자성·강자성 물질의 교환 결합을 이용해 외부 자기장 없이 고속, 저전력 동작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했다.

스핀궤도토크 MRAM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쓰이는 SRAM보다 10배 이하로 전력소모를 낮출 수 있고 비휘발성 특성으로 저전력을 요구하는 모바일, 웨어러블, 사물인터넷(IoT)용 메모리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

박 교수는 "이번 연구는 차세대 메모리로서 각광받고 있는 MRAM의 구현 가능성을 한 걸음 더 발전시킨 것"이라며 "추가 연구를 통해 기록능력이 뛰어난 신소재 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나노기술 분야 학술지인 '네이처 나노 테크놀로지(Nature Nanotechnology)' 지난 11일자에 게재됐다. /인진수 기자

구직자 87% "이력서 개인정보 유출 걱정"

잡코리아·알바몬 설문, 평균 4.7개 직무 무관 개인정보 적어... 주민등록번호 60.9%

올 상반기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구직자들은 이력서에 직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를 평균 4.7개 기재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대다수의 구직자들은 이력서에 적은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하고 있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13일 '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구직자 168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구직자의 86.9%는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개인정보의 유출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잡코리아는 설문문항에 혈액형, 취미, 종교 등 직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 10개를 보기로 제시한 뒤 설문

참여자들에게 올 상반기 입사지원서에 기재해 본 개인정보를 모두 선택하게 했다.

그 결과 제시된 10개의 개인정보 중 '하나도 기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0.9%에 그쳤다. 99.1%의 구직자는 제시된 개인정보 중 적어도 1개 이상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기재했고, 구직자 한 명당 평균 4.7개의 개인정보를 직무와 무관하게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직자들이 입사지원서에 기재해 본 개인정보 유형으로는 ▲주민등록번호가 60.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족사항과 ▲취미가 60.3%의 응답

률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이어 ▲특기(59.4%) ▲신장 및 체중(56.0%) ▲종교(47.8%) ▲혈액형(45.9%) ▲부모님의 직업(45.4%)을 기재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주소 및 ID(25.9%) ▲자산 및 재산 규모(10.5%) 기재를 요구했다는 답변도 있었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개인정보가 직무 역량과 상관없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 채 기재하는 구직자가 많다"며 "입사지원서에 사진을 붙여내는 관행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구직자의 91.9%

가 입사지원서에 사진을 붙여 제출했다. 대부분 기업들은 증명사진을 첨부하지 않으면 서류제출을 못하게 한다.

사진 제출에 대한 고충은 다양했다. '외모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된다'는 응답이 29.6%에 달했다. 이 밖에 '직무와 무관한 요구로 부담하다고 느낀다'(27.8%), '촬영비와 의상 구입 비용 등이 부담된다'(12.5%)는 의견도 나왔다.

이재학 잡코리아 서비스실 실장은 "많은 구직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는 합부로 제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과도한 개인정보 기재 구에는 응하지 말고, 공신력있는 취업포털의 안전 입사지원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의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인진수 기자

6월 수입물가 8개월 만에 최고

유가 상승 영향... 수출물가지수도 두달 연속 오름세

국제유가가 상승한 영향으로 수입물가가 8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16년 6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전월(77.44) 대비 0.7% 증가한 77.97(2010년 100 기준)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78.34)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국제유가가 오른 여파로 광산품과 석탄, 석유제품 등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월평균 배럴당 두바이유가는 5월 44.26 달러에서 6월 46.30 달러로 오름세를 그쳤다.

품목별 수입물가지수를 보면 광산품을 중심으로 원재료가 전월 대비 2.0%, 석탄 및 석유제품(3.5%) 등은

중심으로 중간재도 전월과 비교해 0.4% 증가했다.

환율의 영향을 뺀 계약통화를 기준으로 한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0.6% 오른 반면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0.5% 하락했다.

수출물가지수도 석탄 및 석유제품이 오른 영향으로 전월(80.48) 대비 0.2% 상승한 80.64를 기록했다. 수출물가지수는 지난 5월 석달 만에 반등한 뒤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농림수산물도 전월 대비 0.2% 올랐고, 공산품 역시 석탄 및 석유제품(5.1%) 등을 중심으로 0.2% 상승했다.

계약통화기준 수출물가는 5월보다 0.2% 올랐고 전년 동월보다는 9.8% 하락했다. /인진수 기자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증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

